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단체 최초로 중국 진출을 위한 사업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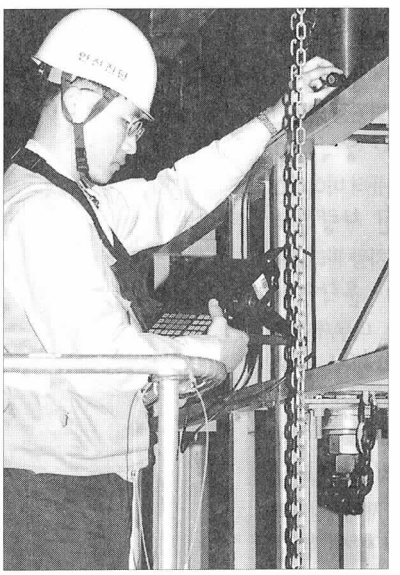
지난 5월 18일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이홍지)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상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중국 북경 대사관의 노무관과 각 지역 영사관의 영사가 직접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北京, 蘇州, 青島, 天津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현지 한국상회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해부터 중국에 진출한 업체에 대해 안전진단과 안전교육 분야에 진출한 경험이 있어 안전시장이 취약한 중국시장에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이번 계기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국내 안전단체 최초로 중국 대륙 진출을 위한 사업기반을 완전히 구축하게 되었다.

중국 NORTHPOLE사에 안전진단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해에 이어 5월 16일부터 NORTHPOLE CHINA. INC XINGLIN FACTORY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번 진단은 전년도 진단시 발견된 유해 · 위험요인의 개선책 시행 여부와 화재 · 폭발 위험요인 발굴을 위해 실시되었다.

NORTHPOLE사는 섬유원단을 코팅하는 업체로 45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규모 있는 업체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진단관계자는 전년도에 실시한 종합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을 잘 시행하고 있어 아직까지 화재 등의 재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섬유원단 코팅을 주요 공정으로 하고 있어 정전기 등에 의한 화재 · 폭발 위험은 항시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매년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NORTHPOLE사와 협의를 맞쳤다고 한다.

LG전자 중국현지생산법인 위험색출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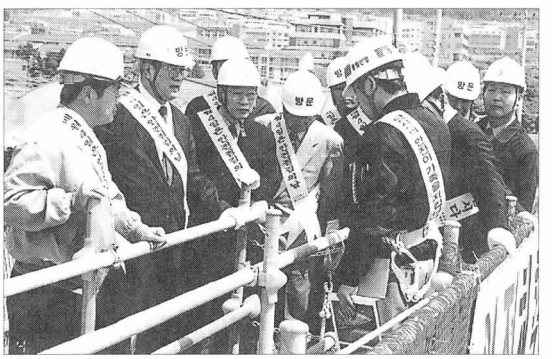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국 진출을 위한 위험색출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LG전자 중국 현지생산법인인 LGESG(장사)를 시작으로 순회교육에 들어갔다.

먼저 장사에서 위험색출훈련과정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각 법인에서 위험색출훈련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리더로서 이번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속적으로 장사, 천진, 심양, 혜주 등을 8월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장사에서의 훈련과정은 교재내용, 교육내용 등 전반적으로 만족하다고 말했다.

『안전한 사회! 새천년의 소망입니다』

〉〉〉 제50차 "안전점검의 날" 풍림산업(주) 제주 월드컵 경기장 시범 안전점검 〈〈〈



어느덧 50회째를 맞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지난 5일에는 2002년 월트컵 경기준비가 한창인 제주도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안전한 사회! 새 천년의 소망입니다"

라는 슬러건을 내걸고 실시된 이번 행사는 풍림산업(주) 제주 월드컵경기장 신축현장에서 각종 재해예방에 대한 시범안전점검이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보 제주도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강상주 서귀포시장, 이홍지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박정규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홍보이사, 좌남수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등 제주지역 주요인사가 대거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지난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범국민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실시돼 온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그동안 불길하다고 여겨온 '4'자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안전의식 고취를 유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사회 각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이래 제주지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중앙시범점검이 이뤄졌다.

안양노동사무소 산재예방 가두캠페인

안양지역 산재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자 이 지역 담당 노동사무소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안양지방노동사무소(소장 김의영)는 "안전점검의 날"인 지난 4일 오전 군포역 주변에서 가칭 군포공단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의식 고취를 위한 가두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시각적 홍보활동과 안전보건 관련 홍보물 5종 2,000부를 배포하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안양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출근시간 가두캠페인에 대한 공단근로자의 호응이 높다며, 지속적으로 재해발생 취약지역을 선정해 순회 가두캠페인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안양노동사무소 주관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양출장소,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양지도원 등 이 지역 8개 산재예방기관의 협조로 이뤄졌다.

개인보호구 재사용시 인센티브 지급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에서는 안전모, 안전화를 지참한 근로자에 대해 당해 보호구의 신품 구입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고 개인보호구 활용 활성화방안"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활성화방안에서 우리 나라 근로자는 보호구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애착이 없어 함부로 취급하고, 잘 사용하지 않으며, 일부 반납받은 보호구조차도 다른 근로자가 사용한 중고라는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여 새로 구입 · 지급함으로서 안전관리비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개인 보호구를 구입 · 지참하고 현장에 출입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며(싱가폴),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하나 반납 받지 않고 다른 현장에서 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일본)

그러나 우리 나라는 개인보호구를 구입 · 지참하고 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안전시설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산안법 체계에 맞지 않으며,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 근로자로서 보호구 구입 및 관리가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됨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반납과 재사용이 거의 안되고 있는 안전모와 안전화에 대해 활용방안을 만들었다.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지난 5월 22일 개정 고시되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3 규정에 의해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중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추락 등 위험장소에서 설치하는 위험경보기"가 추가되었으며,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사용내역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 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 평균임금의 1/25 이내)"이 추가되었다.

또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의 사용내역에서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수수료"를 "대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33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일자	시 간	장 소	세미나 주제	주 관
6.7 (수)	14:00~18:00	코엑스 3층 311호(대회의실)	21C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	대한산업안전협회 (032)667-4191
	14:00~16:40	코엑스 3층 310호(대회의실)	화학공장의 종합적 안전환경관리	한국산업안전공단 (032)5100-815
	14:00~17:00	코엑스 4층 408호(중회의실)	뉴 페러다임-산업간호사의 중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한국산업간호협회 ((02)3473-3821
6.8 (목)	10:00~15:30	코엑스 3층 311호(대회의실)	안전을 잘하면 기업이 강해진다	대한산업안전공단 (032)5100-815
	10:00~12:00	코엑스 3층 310호(대회의실)	사업장에의 소음관리	한국산업안전공단 (032)5100-815
	13:30~17:40		직장에서의 뇌 · 심혈관질환 예방	
6.9 (금)	10:00~17:00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사례 발표회	
	13:00~18:00	코엑스 3층 311호(대회의실)	감전재해예방 세미나	
	14:00~16:00	코엑스 402호(대회의실)	중소기업 안전경영의 평가제도의 도입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 (02)2632-5226